



다날에서 '웨슬리 아노입스' 를 모르면 간첩 다날의 베스트 마당발, 이안호 대리

모바일 결제 및 콘텐츠 전문업체 다날의 최고 마당발로 등극한 인사총무팀 이안호 대리. 그는 회사 제반의 일을 총괄하는 업무 특성상 사 람들 대할 기회가 많은 만큼 평판이 좋거나, 입에 자주 오르내리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구설수를 가뻐히 따돌리고 그의 평판이 자자한 이유는 순전히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탓이다.

“사실 제가 마당발은 아닙니다. 다만 남들보다 발등이 높아서 특수제작한 맞춤구두를 고수해야 하는 인생의 불편을 겪고 있긴 하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의 요건 하나, 유머다.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웃음으로 인도하는 그의 재치는 회사, 동문회, 동네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은 아버님의 작품이라고 한다. 한편 뭘 먹든 혼자서는 못 먹는 것은 혼자 먹는 것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닮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픈 아쉬움 때문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머와 인정의 이안호 대리가 옳는 별명은 안 물어봤으면 몹시 서운했을 정도로 다양하다. 고운 피부가 매력 포인트라며 화장품 브랜드를 패러디한 자칭 '하노라니' (편집자주: 하노는 이안호의 발음상 표기, 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 에서 따온 '웨슬리 아노입스', 골리앗 최홍만을 닮았다 하여 '테크노 골리아노', 긴 얼굴의 가수 윤종신, 개그맨 장용 등 국적 및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닮은꼴이 줄줄 나온다. 유머와 인정과 남다른 외모, 그의 마당발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에는 사원들의 내선번호를 거의 다 외웠거든요,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은 잘 못 외우지만 한번 본 사람들 얼굴 이랑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인맥 좋은 사람의 자적 요건 둘, 기억력이 뛰어나다. 다만 기억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일례로 그가 근무한 어언 3년 10개월 동안 사내 누구의 경조사에서든 그의 얼굴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술은 못해도 분위기는 잘 맞춘다는 이안호 대리. 사내 구기동호회를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팀을 넘나드는 정기모임을 주도한다. 남들은 인맥을 개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들 하지만 그에게 사람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뿐이며 인맥이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인연일 뿐이다. 2개월 전 결혼한 이 뜻뜻한 새신랑은 일이 바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며 마잖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계획이란다. 가족계획에 대한 멘트를 염두에 두고 새해에 바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다운 대답이 돌아온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안호 대리의 천성이야말로 마당발인 그가 살아가는 데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내공이 아닐까.